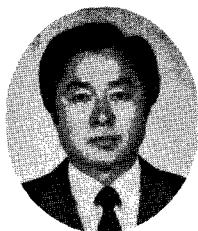


번영과 절도있는 진취성을 함축한 심볼마크를 선정했다.

### 동물검역소장, 김옥경 전과장 임명



◀ 김옥경

농림수산부는 지난 15일부로 국립동물검역소장에 김옥경씨(전가축위생과장)를, 가축위생과장에 이갑일씨(전국립동물 검역소 인천지소장)를 각각 임명하였다.

### 한국축산기계공업협회 심볼마크 선정

한국축산기계공업협회(회장 양창옥)는 지난 6월 19일 동회 회의실에서 제5차 이사회를 성료시키고, 축산기자재업계의 안정적

### 축산폐수시설 규제완화 소규모 축사 신고로 가능

정부는 농업을 포함한 경제분야에 있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관련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종전에 20%이하로 제한했던 폐수배출 변경신고범위가 50%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또한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도 종전의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했다. 따라서 종전의 소규모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자조금사업 본격추진 양계, 3억여원 조성키로

농림수산부는 지난 6월 1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13조와 동법 시행령 26조 및 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자조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양계 및 양돈협회를 자조금 사

업단체로 선정, 이들 단체에게 각각 3억 원 이상의 자조금을 적립하면 최고 1억5천만 원씩을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각 지부 및 분회별로 적립액을 분담하여 1억5천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 '92 2/4분기 위배사료 행정처분

인천직할시는 '92년 2/4 중 경기도에서 실시한 사료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검사에서는 삼우기업의 육분에 대하여 사료성분보증표미부착의 위배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 축산후계자지원금 신용대출위주로 5천만원까지는 농림수산부 신용 보증있어야 가능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은 담보력이 부족한 축산후계자들의 축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축산후계자지원자금을 신용 위주로 대출할 방침이다.

축협은 축산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축산 후계자 자금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1천5백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5천만원까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정부 대출을 권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92년도 축산후계자 자금 4백억원을 1천9백여 명의 후계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양축자금은 2천8백억원, 선도양축농가육성자금은

4백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축산기계화자금 7억원 지원 후계자 육성자금 21억원

축협전남도지회는 도내 양축농가의 축산 기계화 촉진을 위한 축산기계화사업자금 7억4천9백만원과 축산후계자 육성자금 21억 여원 등 28억4천9백만원을 회원조합에 배정했다.

또한 축산후계자 육성자금은 농촌에서 축산을 하는 젊고 우수한 청소년에게 축산기반조성을 지원 함으로써 축산 전문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인당 1천5백만원 까지 융자 지원된다.

금리는 연 5%이며, 축산기계화 사업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축산후계자 육성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이다.

## 수입사료 품질검사 첫 실시 대두박, 타피오카 등 12품목 대상

농림수산부는 지난 2일 인천항에서 선상 또는 창고에 보관중인 대두박을 비롯해 타피오카, 수수, 육골 등 수입사료 12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입사료의 품질검사를 1차적으로 실시한데 이어 앞으로 부산을 비롯 울산, 군산 등 주요항구를 거쳐 수입되는 모든 사료에 대해 품질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동물검역 출장소 개설

## 부산지역에 2곳

동물검역소(소장 김옥경)는 검역업무의 활성화와 수출산업 간접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부산지역에 2개소의 출장소를 개설 했다.

지난 1일 개설된 부산지역 출장소는 자성대와 신선대 출장소로서 통관직후 부산창고의 입고를 생략, 서울직송을 돋기위해 취해진 조치로 알려졌다.

## 도계육 위생관리 철저 시달

농림수산부는 축정27400-66('92.1.21)호, 위생27464-513('92.7.8)호와 관련해 도계부사물 및 폐수처리 소홀로 인해 비위생적인 닭고기의 생산, 유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계육 위생관리 지시사항을 표1과 같이 시달했다.

### 도계육 위생관리 지시사항

1. 양계농가 등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지도 · 홍보 강화
  - 동물약품성분 등의 근원적인 잔류요인 차단을 위해 가축사육 단계에서의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적정한 사료의 선택·급여 등 사양관리 요령 적극홍보
    -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질병치료 시 전문수의사와 상의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며
    - 항생제 등 동물약품 투여시 휴약기간을 충분히 지킨 후 출하토록 하는 한편,
    - 출하전 일정기간은 동물약품 등이 첨가되지 않은 후기배합사료를 급여한 후 출하토록 지도하는 등 사양관리시의 주의사항 중점제도
  - 도계장의 자체검사 등 위생관리 실시상황 지도 · 감독 철저

- 수축 및 축산물검사업무 처리규정(당부훈령 제728호)에 의거 도계 위생관리강화
  - 월 2회이상 관할 도계장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불합격품의 처분, 검사의 기록유지 및 검사상황 등
- 도계부산물 및 폐수의 적정처리 지도
- 3.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 추진철저
- 동 검사사업 실시상황 수시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것.
  - 1차 검사결과 양성판정축 출하농가에 대한 특별관리 철저 :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잔류방지 계도 및 재출하시 검사강화 등
-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장비 설치·운용 등 검사체계 조기 구축
- 축산물 검사요원 기술교육 등을 통한 검사능력 및 숙련도 함양
- 4. 도계장을 경영하고 있는 외식(치킨)업체등 계열회사업 주체로 하여금 계약농가에 대한 사양관리제도 및 도계장에서의 도계검사 등 위생관리에 철저도록 필요조치 강구시행

##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회신 품질개선과 생산성을 위해 노력해주길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명의식)는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 전진대회시 대정부 건의문('92. 5.21)을 정부에 전달한 바 이에 대한 회신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받았다.

- 우리나라 '89. 10월 BOP졸업 및 GATT 쇠고기 폐널에의 제소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97년까지 수입개방 의무를 지고있기 때문에 쇠고기 수출국들은 현재를 개방의 전단계로 보아, 쿼터의 확대, SBS의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한우는 농민의 주요 소득원인 동시에 한국 축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협상을 발휘하여 국내 한우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한편으로 가축의 개량에서부터

소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그러므로 생산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우리 한우의 품질개선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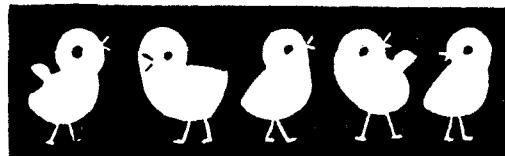
## 농촌일손돕기 추진 6~12월, 7개월간

나주군에서는 축산농가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92년 6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기계화가 안된 산간오지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

여 농촌일손돕기를 추진중에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손돕기는 축산농가의 부족한 일손지원은 물론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정부정책 홍보, 농촌의 실태파악과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자료수집을 통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

참여방법은 개인, 단체별로 각 시군, 읍면에 설치된 “일손지원센타”를 통해 접수를 받으며 농기계(축산용 기계)보내기 성금 또는 현품을 행정기관이나 각 방송사, 신문사에 기탁할 수 있다.



## 무허가 부화장 및 미등록 종계장 고발센타 안내

- 대상 : ○ 무허가 부화장 경영자  
○ 미등록 종계장 경영자  
○ 미검정 종계 유효기간 초과 종계 보유자  
○ 불량종란 또는 불량초생추 생산·유통하는자
- 방법 : 서면 또는 전화(신분 보장)
- 조치 : ○ 접수후 사실확인 위법사실 확인되면 당국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  
○ 결과 월간양계 및 양계관련 매체에 공표
- 접수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전화 : (02) 588-7651, Fax : 588-7655